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2월(제90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파라과이와 베트남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펼쳐 주세요  
**JICA 청년해외협력대 파견 오이타현**



지난달 12일, JICA 청년해외협력대가 파견 전 인사차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부장을 예방했습니다. 오이타현에서는 우메키 가나(梅木 伽那) 씨와 스즈키 호노카(鈴木 穂乃花) 씨의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2년 파견). 우메키 씨는 파라과이에 물리치료사로 파견되어 정부 기관에서 치료 및 물리치료 프로그램의 점검 등을 할 계획이며, 스즈키 씨는 베트남에 파견되어 지역 발전을 목표로 현지 지자체 직원과 협력하여 관광진흥에 힘쓸 예정입니다. 두 분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에도 향기 짙은 성하 마을에서 '히이나 순례'를  
**히이나 순례 소개 기쓰키시**



기쓰키시 관광 협회 홈페이지

매년 2~3월이 되면 전국의 성하 마을에서 전통 히나 인형을 장식하는 '히나마쓰리'가 열립니다. 그중 기쓰키시는 성하 마을임을 강조하기 위해 오이타현 내에서 열리는 '히나마쓰리' 중 유일하게 히나 인형의 예스러운 표현인 '히이나'를 사용하는데, 에도 시대 의사였던 사노 가문에 전해지는 귀중한 히나 인형을 비롯해 교호 시대부터 무가와 상가에 전해지는 히나 인형 등 다양한 히이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히나마쓰리 분위기로 가득한 기쓰키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기모노 산책  
(きもの散策 IN 杵築ひいなめぐり)

일본 의상 착용 시 공공 관광 시설 입장 무료. 기모노 감사제(2월 17일) 날은 기념품&기념사진 촬영 및 증정!



히이나 특별 메뉴  
(ひいな特別グルメ)

기간 동안 6개 매장에서 히이나 한정 메뉴를 판매. 히나 인형을 연상하여 만든 특별하고 다양한 음식을 즐겨 보자.

**오이타현 소식**



지난달 오이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오이타현, 노토반도 지진 이재민에 현영 주택 무상 제공
- 풋살팀 바사지 오이타, 겨울 리그 4위로 마무리
- APU 유학생 양로원 파견...이문화로 교류의 장 열어
- 얼음과의 사투...벳푸 쓰루미다케 추위 참기 대회 개최
- 아지무정,상표 등록된 '노하쿠(농촌민박)' 정부사용 협정 연장
- 오이타시 호신지 절, 냉수마찰로 지진 피해 지역 응원
- 분고타카다시, 새해 전통 행사 '호란엔야' 개최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2월(제90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진격의 히타에서 “신조오 사사게요(심장을 바쳐라!)”

## 진격의 거인 관련 시설 소개 히타시

2013년에 첫 애니메이션 방영된 만화 ‘진격의 거인 (통칭 진격거)’는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관심을 가지게 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킨 당시 최고의 화제작이었다. 나 역시 진격거를 좋아했기에 오이타에 와서 히타시가 작가의 출신지라는 것을 알고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히타시의 진격거 관련 시설 세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 ① <진격의 히타 카페: 진격의 히타 도시락>

패트리아 히타 2층에 있는 ‘진격의 히타 카페’에서는 캐릭터를 모티프로 만든 한정 컵홀더와 음료 메뉴, 그리고 도시락(예약제)을 맛볼 수 있는데 만화에서 먹는 장면을 패러디한 도시락 패키지와 ‘사사가 상관의 식량 창고에서 훔쳐 온 고기’, ‘마레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로 만든 마리네’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팬이라면 이를 알아보고 웃음이 날 것이다. 물론, 음식도 맛있으니 궁금하다면 먹어 보자.



### ② <오야마 댐: 소년 엘런, 미카사, 아르민 동상>

“그날, 인류는 떠올랐다...” 라는 대사가 탄생한 월 마리아 함락의 날을 엘런, 미카사, 아르민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이곳은 오야마 댐 하류 광장이다. 실제 댐의 높이는 초대형 거인(60m)이 부순 월 마리아(50m)보다 훨씬 높은 70m로, 세 사람이 느꼈을 공포가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듯했다. 개인적으로는 실존하는 댐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고안해 낸 훌륭한 지역 진흥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인상 깊었다.



또한, 스마트폰에 ‘진격의 히타 앱’을 설치하면 AR (증강 현실·실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 콘텐츠를 통해 ‘진격의 히타’를 더욱 즐길 수 있다. 오야마 댐을 비롯한 히타시의 특정 장소에서 앱을 실행해 카메라를 비추면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며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JR 히타역 남쪽 광장, 아мага세 다리, 포레스트 어드벤처 등에서도 AR로 캐릭터를 만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한다면 더욱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2월(제90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③ <진격의 거인 in HITA 뮤지엄>

입구를 들어가면 박력 넘치는 초대형 거인과 갑옷 거인의 모형이 반겨 주는 '진격의 거인 in HITA 뮤지엄'에서는 만화의 원화와 작가 '이시야마 하지메' 씨가 지역 진흥을 위해 그린 오리지널 원화, 그리고 작가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작품 및 물건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바로 옆에 있는 '미치노 에키 미즈베 노사토 오야마(휴게소)'에서 진격거 아크릴 스탠드, 텀블러, 방향제, 그리고 '히타의 매실'로 만든 우메보시(매실장아찌)를 구매할 수 있는데, 다양한 상

첨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한데, 이 모든 건 '작품을 만든 계기가 된 이 마을에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작가의 마음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덕분에 나를 포함한 팬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작품은 물론 '히타시'에 대한 애정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히타시의 진흥과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오이타현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오래오래 이 인기와 열기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품을 보고 있자니 인기 만화를 활용하여 지역 진흥을 도모하려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진격거 관련 시설 방문을 위해 히타시를 찾은 방문객이 식사, 숙박, 상품 구매 등을 하여 발생한 경제적 효과는 약 54억 엔에 이른다고 한다(※진격의 히타 마을 진흥 협의회 사무국 (주)티앤에스 오이타 추계). 실제로 마을 곳곳이 진격거로 가득하고 많은 한국인이 히타시를 찾는 점을 미루어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



### 진격의 히타 카페 (進撃の日田カフェ)

- 주소: 日田市三本松1丁目8-11(〒877-0016)
- 운영 시간: 11:00~16:00(매주 월요일 휴무)
- 도시락: 1,500엔(예약제·이틀 전 15시 예약 마감)



### 오야마 댐 진격의 거인소년엘런, 미카사, 아르민 동상 (大山ダム 進撃の巨人エレン・ミカサ・アルミンの少年期の銅像)

- 주소: 日田市大山町西大山2008-1(〒877-0201)
- ※동상이 설치된 곳은 하류 광장이며 연중무휴임
- ※무료 주차장에 주차 후 도보 이동이 필요함



### 진격의 거인 in HITA 뮤지엄 (進撃の巨人 in HITA ミュージアム)

- 주소: 日田市大山町西大山4106(〒877-0201)
- 운영 시간: 평일 09:30~16:00/주말·공휴일 17시까지
- 입장료: 성인 500엔 / 소인(만 18세 미만) 무료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2월(제90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35화

노지, 처음으로 일본에 가다! 



처음부터 위기에 처한 노지였지만  
다행히 선생님께서 안경을 빌려주셔서  
5일동안 앞은 볼수있었다^^j



그렇게 이른 아침 일본에 도착하니  
히라가나로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또 일본어로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들리자



'진짜로 일본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정말 신이 났고 또 기뻐했었다.



기쁨도 잠시, 바로 교토로 이동해  
금각사와 청수사를 둘러보았고



깜짝한 브이...



빙수 보자마자 아이에서 보면 거라며 죽시 주문...

다음날에는 나라시청을 방문한 후  
어느 나라 시립 중학교와 교류를 했는데

나라시청 방문중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와 다른 나라에서 자란 또래를 만났던  
특별한 경험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계속



이 중학교 교류에서는 어떤 일들이 노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